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해동성국 대발해는 어떤 나라였을까?

동북아 여러 부족 지배한 대발해

1. 고구려를 이은 동북아 대제국

김부식은 고구려의 해체 이후 그 유민들 중 고구려 고씨(高氏)의 별종(別種)인 대씨(大氏)가 세운 '대발해'를 독립된 '국명(國名)' 또는 건국조인 대조영을 독립된 '본기(本紀)'로서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신라의 『최치원전』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대)발해에 대해 "의봉(義鳳) 3년(678) 고(古)려 유민들이 태백산 아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대)발해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에서 "말갈 발해" 조목을 시설하여 대발해가 한국사임을 분명히 하였다. 고구려가 망하자 약 20여 만 명의 고구려인들이 당나라로 끌려갔다. 유민들은 당나라로 끌려가면서 당의 정략에 의해 동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이들 중 일부 유민들은 요서의 영주(營州)를 중심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모하였다. 유민들 일부는 고구려 장군이었던 대(대)중상(大丘仲象)과 대조영(大祚榮)을 따라 고구려의 부흥운동에 전념하였다.

때가 무르익자 고구려 유민들은 말갈인들을 거느리고 대(대)중상은 678년 소국에 준하는 정치세력을 형성시킨 뒤 684년에는 진국(震國, 小渤海)을 건국하였다. 이 소발해(진국)는 다시 대조영의 아들인 대조영에 의해 '대씨의 발해'이자 '광대한 발해'인 '대발해' (大渤海)로 이어졌다. 대조영이 건국한 대발해는 '고씨의 고구려'를 계승한 '후고구려'이자 '고씨의 별종'인 대씨가 세운 대제국이었다. 대발해

고구려 고씨 별종인 대씨의 제국

고구려 복원과 유민포용 의미

의 건국은 종래 동북아시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고구려의 복원과 당나라에 맞서는 새로운 제국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의 해체 이후 낯선 영주(營州)로 떠나 객지의 삶을 살아야 했던 유민들과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속말갈과 백산말갈 등은 이 지역의 글안(거란)족들과 반당(反唐) 전선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제국의 건설에 전력하였다.

696년 반당 봉기로 추장 이진중(李盡忠)과 손만영(孫萬榮)에 의해 글안국이 건설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고구려 유민들과 고구려의 지배를 받던 말갈족 등은 동북쪽으로 이동했다. 이들을 뒤쫓던 당나라 장수 이해고(李楷固)가 이끄는 대군과의 전투(天門嶺) 전투에서 대승한 대조영은 동모산으로 이동해 대발해를 세웠다. 대조영은 흥안해(경박호) 가까운 곳인 상경용천부(東京城)를 수도로 잡아오므로 나라 이름을 '흥안해'를 달리 말하는 '발해'라고 불렀다. 그런데 '작은 바다'를 나타내는 보통명사 '발해'는 길이가 약 55킬로미터, 폭이 약 10킬로미터의 타원형으로 된 '경박호'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때문에 이 호수를 바다처럼 넓다고 여긴 '흥안해'를 제국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해서 676년 고구려 유민들이 형성시킨 소국에 준

하는 정치세력과 대결중상이 684년 동모산 중심으로 세운 소발해(진국) 등과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약 260여 년 간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부족을 지배했던 대제국의 위상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발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면 대발해가 멸망한 뒤 열만화가 세운 후발해인 정안국(定安國)과 몇몇 발해국들과 글안이 유민을 이끌고 세운 위성국 동단국(東丹國) 등도 변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대씨가 세운 발해'를 '대발해'라 한 것은 '고씨가 세운 구려'를 '고구려'라고 한 것에 부응한 표현인 것이다.

2. 한민족사 최초의 해외 원정

대발해는 초조인 고향 대조영부터 제15대인 예제(大?, 906-926)까지 약 230여 년간 존속했던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이었다. 태조인 고향(698-719재위)을 이은 대무예(大武藝, 719-737)는 냉철한 판단과 대담한 전략으로 주변의 당나라와 흑수(黑水)말갈 및 글안(거란)과 해(奚)족 그리고 신라와 왜(일본)를 제하여 신생 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때마침 흑수말갈이 당 현종을 찾아와 조공을 바치며 관리 요청을 하면서 대발해를 배신하였다. 현종은 흑수말갈을 쫓아 관자를 주면서 흑수말갈에 관정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대무예는 동생 대문예를 보내 흑수말갈의 토벌을 명했다. 하지만 동생 대문예는 당에 인질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당과 등지는 것이 나라에 좋지 않다고 하며 형의 명을 어기고 당에 투항하여 작위를 받았다.

대무예는 동생 문예를 방치했다가는 나라의 정국이 흔들릴까 두려워 당 현종에게 국서를 전달하며 동생 문예를 죽이라고 요청했다. 현종은 문예를 죽였다고 거짓으로 알리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이 사실을 안 대무예는 당나라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꾀하기로 하였다. 때마침 당에 인질로 가 있던 대무예의 아들인 태자 대도리행이 급사했다. 당은 대발해 배후에 있는 흑수말갈과 남쪽에 있는 신라와 삼각동맹을 맺고 대발해를 포위했다. 대무예는 당나라 중심의 질서에 맞서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본으로 파견된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동해를 건너 일본과 교류를 꾀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당-신라-흑수말갈의 삼국의 제휴를 깨기 위해 기습전을 꾀기로 했다.

무왕 대무예는 서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항구인 압록강의 박자구에 수군을 결집시켰다. 고구려의 빼어난 수군 전통을 계승한 대발해 수군 정예병 2만은 장군 장문휴(張文休)의 통솔에 의해 산동성의 등주(登州)를 공격하였다. 대발해 수군들은 우수한 군사력과 속전속결의 전략으로 등주(登州)와 위준(衛俊)을 죽이고 산동성 일대를 한동안 지배했다. 이 전투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첫 해외 원정에서 승리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다. 당 현종은 나당 전쟁 이후 한동안 소원한 관계에 있던 신라를 부추겨 대발해를 공격하게 하였다. 당 현종은 김유신의 손자인 김윤중(金允中)을 장수로 거명하면서 10만의 병사를 보내 대발해를 공격해 주도록 하였다. 군사를 이끌고 출



초조 대조영부터 약230여년간 존속한 발해의 역사는 우리민족사의 북방제국 중 일부로 남아있다. 사진은 드라마 '대조영'의 한장면.

병한 신라군은 대발해 국경에서 큰 눈을 만나 싸워 보지도 못하고 반 이상의 병사들을 잃고 회군하였다.

당 현종은 토벌군을 1만 명을 모아 무왕의 동생 대문예에게 진두를 맡겨 형 무예에게 맞서게 하려

당과의 전쟁 승리 · 해동성국 칭해져

불교문화 기반한 대제국 완성

하였다. 이에 무왕은 압살단을 낙양의 천진교로 파견하여 문예를 습격하였으나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무왕은 (마)도산(都山)으로 군사 1만을 거느리고 몸소 중원으로 진격해 나가 당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응징을 꾀하였다. 당 군은 수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자 산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수성전으로 버텼다. 결국 무왕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당 군은 심각한 손상을 받고 궤멸되었다. 당시 전쟁에 참가한 당나라 장수 '오씨묘비명'에는 "관리와 백성들이 달아났다" [吏民逃] 혹은 "본업을 상실했다" [徒本業]고 적혀있다. 결국 세계 최강이었던 당 군은 전멸하였고 무왕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후 당나라는 대발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대발해를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산동성의 등주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정치·외교 전에서 승기를 잡은 대발해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3. 바다 동쪽의 강성한 대제국

무왕을 이은 문왕 대흥무(大興茂, 737-793)는 대발해 역사상 가장 강대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내치(內治)가 강화되고 국력이 공고해지면서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하였다. 송나라

의 사서인 『책부원구』는 그가 "말갈과 불열과 철리 부족을 복속시키고 북쪽으로 강역을 크게 확장시켰다"고 적고 있다. 그는 불교식 황명(황명)이 존호인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는 존호로 불리어졌다. 문왕이 즉위하여 쓴 독자 연호인 '대흥'과 '보력'은 문왕 자신이 사용하였던 연호였다. 연호의 반포는 황제의 고유한 권한이자 제국으로서의 위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다. 774년 문왕은 유신(維新)을 단행하여 연호를 '대흥'에서 '보력'으로 개원했다. 그리고 스스로 '고려국' (高麗國)이란 국호와 '대왕' (大王) 및 '천손' (天孫)과 '황상' (皇上)이란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윽고 통치 후반기에 들어선 그는 국력을 크게 신장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자 좀 더 과감한 불교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문왕의 이 호칭은 당나라 축전무후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축전무후는 종래의 존호에다 '금륜성신황제' (金輪聖神皇帝)를 덧붙였다. 이어 '월고금륜성신황제' (越古金輪聖神皇帝)로 칭하였고 다시 '자씨월고금륜성신황제' (慈氏越古金輪聖神皇帝)로 일컬었으며, 또다시 '천책금륜성신황제' (天冊金輪聖神皇帝)로 바꾸어 부르게 했다. 문왕 역시 축전무후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륜성왕 실화를 이용하여 불인 불교식 황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금륜'은 사천하를 통치하였던 '금륜왕'을 의식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전륜성왕은 일곱 가지 보배를 성취하고 네 가지 덕을 갖추어 수미산을 둘러싼 동남서북 4주를 통일하고 정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을 말한다. 그리고 '성법왕'은 과거불인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을 가리키며 전륜성왕과 관련이 있다.

그가 '대왕'과 '천손' 및 '황상'의 칭호와 맞물려 전륜성왕 실화를 채택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수도를 비롯한 5경

(돈화, 중경, 상경, 동경, 남경) 등에 세웠던 다수의 사원들과 유적 유물 및 정화·정요 공주 묘비의 유물들 그리고 팔련성과 반랍성 등을 중심으로 한 이 불명좌상(二佛並坐像)의 광범위한 분포 등에서도 확인된다. 기록에 의하면 상경 용천부에는 9개의 절을 짓고 절 앞에는 석등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는 6미터 높이의 석등 1기가 남아 있다. 대발해 황실은 여타의 제국과 달리 건국 이래 네 차례나 수도를 옮겼다. 동모산 아래 '구국' (教化 지역)에서 도읍을 한 대발해는 3대 문왕 친보 연간에 '구국'에서 '중경' (中京)으로 천도한 뒤, 다시 '상경' (上京)으로 수도를 옮긴 뒤, 또 다시 동경(東京)으로 천도하였고, 5대 성황은 즉위하자마자 상경으로 수도를 옮긴 뒤 이곳은 국망 때까지 수도로 자리했다.

대발해는 상경용천부를 중심으로 압록도와 영주도, 거란도와 신라도 및 일본도 등 다섯 갈래의 길을 개설하여 교역하였다. 일본의 구법승인 원인(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승례행기』에는 "등주에는 신라관과 발해관이 나란히 있었으며", 대발해의 대표적 수출품은 "부여의 시승, 마힐의 돼지, 솔민의 말 등이었다"고 한다. '담비거죽' (貂皮) 등의 특산물은 일본에서 크게 팔려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한다. 고구려 장수 이정기(李正己)가 세운 제(濟, 평로차정변진)나라에는 '솔민의 말'을 수출하여 안록산의 난으로 위기를 맞은 당나라를 압박하게 하였다. 대발해를 멸망시킨 글안은 유민들을 요양(遼陽) 지역으로

등주에 발해관 기록으로 영광 전해

국망 후 유민 고려에 귀부

강제 이주시키고 상경성과 여러 절들 및 관련 기록들을 불태웠다. 그 뒤 글안은 대발해 강역을 잠시 동안국이라 하여 지배하였다. 발해 유민 일부는 고려에 귀부하였다. 국망 이후 여러 차례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지역이 말갈의 후신인 여진족의 무대가 되면서 대발해 관련 기록은 더욱 더 묻혀 버렸다. 여진은 이곳에 금(金)나라를 세웠고, 금을 이은 후금은 뒷날 다시 청나라가 계승했다. 그 뒤 이곳은 한국인들이 일군 간척지 동간도와 서(북)간도의 일부만이 반도와 이어지면서 독립운동의 무대가 되었다. 일본은 위성국인 만주국을 세웠으며 현재는 중국에 통합되어 있다.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 김문경 역주, 『입당구법승례행기』(종실, 2002).
- 역사스페셜, 『발해는 왜 동해를 건너고』(1998. 11. 7)
- 한국사전, 『발해2부작: 대무예와 대흥무』(2008)
-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淨安寺 心靈治療院
(사찰등록번호 : 504-8268565)

건강 소망

각종 난치성 말기환자
의학적 치유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
(방문치유 및 요양치유 전문)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15-1
자연휴양숲 최절경
상담전화 010-6810-6158
道律 스님 합장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계, 다계, 향화계, 오공양, 읊남, 기령이, 범고
- 사 물 : 법당복,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의처 : 강주 흥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슬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